



작은도서관들의 유쾌한 작당

울산작은도서관협회

이렇게 '스스로'를 시작했어요

- 소개 : 울산작은도서관협회(울산의 28개 작은도서관이 모인 네트워크)
- 기획배경
 - 울산작은도서관협회 작은도서관의 발전과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
 - 울산작은도서관협회의 비전과 방향성을 논의
 - 울산작은도서관협회원 교육

- ① 울산도서관협회 창립으로 앞으로의 방향 모색: 2019년 3월11일(월) 울산도서관
- ② 환경이 다른 작은도서관들끼리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
- 북구(33개관)
 - ↳ 네트워크도서관(13개): 네트워크 작은도서관 1개소당 연간 1,100만원 지원 (인건비 660만원(매월55만원), 도서구입비 200만원, 운영비 120만원, 프로그램비 120만원지원)
 - ↳ 그 외 도서관(20개관): 구청에 등록된 뒤 1년이 경과한 도서관 4개소에 연간 200만원의 도서구입비를 지원
- 울주군(47개관) :공립작은도서관 13개관, 사립작은도서관 34개관
군에 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한 도서관은 1개소당 일괄 2,200,000원 지원
- 동구(21개관): 공립작은도서관 4개관, 사립작은도서관 17개관
 - 사립작은도서관 1개소당 7~80만원 (2019년 1,350만원. 전년도대비 50%삭감)
 - 동구청에 작은도서관 등록만 하면 운영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지원
- 남구(33개관) :공립작은도서관 11개관, 사립작은도서관 22개관
주민센터 안 마을문고를 공립작은도서관이라 부름

사립작은도서관 / 도서구입비 등록된 지 1년 이상 된 도서관 1개소당 200지원

- 중구(37개관):공립작은도서관 14개관, 사립작은도서관 23개관
중부도서관 2022년 준공예정
- 작은도서관예산 1,658만원 사립개소당 110만~130만 차등지원
- 순회사서 -함월도서관, 옥골샘, 복산2동 외 1개관 주 회 순회 (3월~11월)

- 서로 다른 지원환경 속에서 작은도서관을 운영. 협회에 바라는 사항이 다를 수 있어 조율이 필요
- 구별 협의회가 있는 곳은 서로 교류하고 정보 교환할 수 있는 통로가 있으나 협의회가 없는 지역의 작은도서관은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모자람.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

이렇게 공부했어요

① 사전모임

- 스스로 아카데미 확정 후
- 7월 24일 (수) 울산도서관/ 스스로 아카데미 기획팀 꾸리기
- 8월 13일 (화) 대명루첸아파트 작은도서관(남구)/ 구체적인 내용점검
- 8월 21일 (수) 울산도서관/ 스스로아카데미 최종점검
- 8월 13일 교육일정 확정

- * 제목 : 작은도서관들의 유쾌한 작당
- * 목적 : 작은도서관 활성화 마련을 위해 울산작은도서관협회가 무엇을 할 것인지, 활동방향을 모색한다
- * 기간: 2019. 9.03. (화) ~ 9. 24. (화) 10:30/ 3회
- * 장소: 울산도서관 문화교실1,2
- * 세부일정
 - 1차시 : 9월 3일 울산작은도서관을 잇다 - 작은도서관 함께 할래?
 - 번 외 : 9월 10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- 작은도서관 필수 교육프로그램
 - 2차시 : 9월 17일 작은도서관들의 유쾌한 작당 - 작은도서관 공감대 형성
 - 3차시 : 9월 24일 협회야! 이것 좀 해 줄래? -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협회의 방향 모색



② 1차시 : 작은도서관들의 유쾌한 만남

- * 날짜: 2019년 9월3일(화) 오전 10시 ~12시 15분
- * 장소: 울산도서관 문화교실 2
- * 참석인원 : 44명

* 진행순서

- 1부 : 인사, 내빈소개 및 축하 말씀
- 작은도서관 20년 함께 읽을래? 상영회

2부 : 퍼실리테이션

- 영상보고 느낀점 나누기, 질문과 답변의 시간

진행시간	내 용	비 고
10:00~11:00	사회자 : 전체진행설명	10시~10:05
	인사말 (3명)	10:05~10:12 (2분*3명 + 1분)
	<작은도서관 함께 읽을래?> 상영	10:12~10:57 (45분 상영)
	2부 설명	10:57~11:00
11:00~11:30	서로 인사	11:00~11:08 (1분*8명)
	느낀 점, 모두의 공통질문 이야기 나누기	11:08~11:26 (2분*8명+2분) 포스트잇 사용(여러 장 사용가능)
	나눈 내용 정리	11:26~11:30 (4분) ① 조이를 기록하기 ② 정리된 조는 카톡방에 올려주기/ 느낌, 질문 있으면 "질문"이라고 카 톡방에 써주기
11:30~12:00	느낀점 발표	11:30~11:40 (2분*5조)
	질의응답	11:40~11:55 (15분)
	마무리, 사진찍기	11:55~12:00

* 영상 본 후 느낀 점 나누기

- 도서관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곳이다. 이용자가 주인이 되는 곳을 다시 생각했다.
- 다른 작은도서관들의 특색 있는 활동들을 보고 우리 도서관에도 도입하고 싶다.



- 작은도서관의 유지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감동적이다
- 작은도서관은 삶을 나누는 공간, 공동체 공간이다 경쟁 아닌 나눔의 공간
- 아이들이 행사의 주체가 되는 모습, 야외 작은도서관, 몸놀이, 책잔치가 인상적이었다.
- 왓지지껄 시끄러운 도서관이 작은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장점이다.
- 도서관의 지속가능성, 작은도서관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.
- 우리도서관의 정체성. 봉사와 생계의 갈림길(밥줄)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?
- 주민참여가 답이다.
- 20년 동안 지속했다는 것. 그 수고로움이 보여 진다.

*** 궁금한 점**

- 운영비 마련과 도서관 운영의 지속적인 힘이 궁금하다.
-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의 정체성과 존립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?
- 구입도서 선정방법이 궁금해요 등

*** 1차시 스스로 아카데미 평가**

- 각 구별 참석자가 골고루 섞여서 다섯 조가 만들어졌고, 각자 소개 및 도서관 소개 간단히해서 좋았다.
- < 작은도서관 20년 함께 읽을래? > 영상을 통해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사례와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.
- 영상을 본 후 느낀 점과 궁금한 점을 적고 조별 모둠형식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통해 다른 지역 작은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사례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다.
- 모둠에 따라서는 모둠장이 퍼실리테이션 형식으로 진행해본 경험이 부족해서 시간 안배와 정리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.

③ 2차시 : 작은도서관들의 유쾌한 작당

* 날짜 : 2019년 9월17일(화) 오전 10시 ~12시

* 장소 : 울산도서관 문화교실 1

* 참석인원 : 26명

*** 진행순서**

토론 1)

[유쾌한 혁명을 작당하는 공동체 가이드북] 책 이야기 나누기

- '공동체'와 '대화' 빼고 3단어 이상씩 적고 이야기 나누기
- '한 문장으로 정리'

토론 2)

- 작은도서관을 하게된 계기
- 작은도서관 흑역사 (작은도서관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)

진행시간	내 용		비 고
10:00~10:07	전체 진행	사회자 : 전체진행설명	10시~10:07 (7분)
10:10~11:30	모둠 토론	서로 인사	10:10~10:15 (1분*8명)
		토론1 : 책이야기 나누기 - '공동체'와 '대화' 빼고 3단어이상씩 적고 얘거나누기 - 한 문장으로 정리	10:15~10:42 (3분*8명+3분) 포스트잇 사용(여러 장 사용가능) 10:42~10:45 (3분) - 정리 ① 조이름 기록하기 ② 정리된 조는 카톡방에 올려주기
		- 작은도서관을 하게 된 계기나 기억에 남는 것	10:42 ~ 10: 58 (16분)
		- 작은도서관 흑역사	10:58~11:26 (3*8+2분)/ ~11:30(4분)정리 ① 조이름 기록하기 ② 정리된 조는 카톡방에 올려주기
11:30~12:00	공유 시간	토론1	11:30~11:40 (2분*5조)
		토론2	11:40~11:50
		마무리, 사진찍기	11:50~12:00

* 조별발표내용

<책이야기 나누기>

책의 내용을 담고 있는 키워드 단어 3개를 쓰고 이야기하기

- 행복, 경청, 관계, 모임
- 혁명, 스타디서클, 행복, 우리
- 행복, 경청, 관계, 열정
- 소통, 평등, 행복, 배려,

<키워드로 한 문장 만들기>

-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위하여 모임을 만들어 혁명을 시작하자!
- 행복해지고 싶다면 만나라!
- 행복은 단체의 수다와 경험에서 시작된다.
- 행복은 타인으로부터 온다.
- 타인과의 유쾌한 작당이 행복으로 가는 길
- 행복은 관계로부터 생겨나 공공의 변화를 이끈다
- 행복이란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다로 만들어진다.
- 경청을 잘하면 좋은 질문이 나오고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.

* 도서관활동을 하게 된 계기

- 꼭 하고 싶어서.
- 도서관에서 하는 그림책모임을 하며 자주 오게 되고 운영위원해보라 해서 거절을 못해 시작
- 자원봉사 모집광고를 보고
- 지인의 권유로
- 자원봉사를 하면 아이가 책을 좋아하고 책을 자주 접할수 있을것 같아서
- 독서토론의 토대가 형성될거 같아서 시작하게 됨.

* 나의 흑역사 : 작은도서관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, 기억에 남는 일

- 도서관 이용자와의 관계, 감정소모가 많다.
- 현실적인 경제적 지원, 인건비 마련의 어려움, 활동비, 운영비 부족
- 업무분담이 힘들고, 프로그램 진행및 홍보, 사람모으기 어려움

- 인적자원, 활동가 부재, 봉사자 모집 어려움
- 가정일과 도서관일을 둘다 잘해내기가 어려움. 집안일에 신경 못 쓸 때 활동에 회의가 듦

* 2차시 스스로 아카데미 평가



- 조별 구성을 1차시때와 다르게 해서 모르는 분들이 또 한조가 되서 인사를 나눌 수 있었다.
- 질문과 나눌 얘기가 많았지만 1차시 때의 경험으로 퍼실리테이션 형태의 토론이 좀더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.
- 책이 좀 어려웠다는 얘기와 도서관활동에 관한 노하우를 더 알고 싶다는 요구가 있었다.
- 작은도서관 활동을 하면서 느낀 힘든 점 등을 활동가들이 함께 공감하는 시간이 됐다.
- 강의식보다 자유롭게 토론하고 얘기 나누는 시간이 훨씬 참여도가 높고 호응이 좋았다.

④ 3차시 : 협회야! 이것 좀 해줄래?

*일시 : 2019년 9월 24일(화) 오전 10시~12시

*장소 : 울산도서관 문화교실 1

*참가자 : 23명

*진행

- 여는 질문 :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
- 본 질문 : 협회의 방향모색 (협회야 이것 좀 같이 해줄래?)
- 키워드 문장으로 정리해서 투표하고 결과 공유
- 스스로 아카데미 그동안의 준비와 활동 모음영상 (3분)

진행시간	내 용		비 고
10:00~10:07	전체 진행	울산도서관 관장님 인사말 사회자 : 전체진행설명	10시~10:07 (7분)
10:07~11:30	모둠 토론	서로 인사	10:7~10:17 (1분*10명=30분)
		여는 질문 :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	10:17~10:47 (3분*10명=30분)
		본 질문 : 협회에서 해야 할 일	10:47~11:20 (3*10+3분=33분) 11:20~11:30 (10분) 정리하는 시간 ① 조이를 기록하기 ② 포스터잇 사용- 분류해서 키워드 단어 적기 ③ 문장으로 정리하기
		사진전송	11:30 정리된 조는 카톡방에 올려주기
11:30~11:50	공유 시간	토론1, 2	11:30~11:40 (2분*4조+2분)
		영상(스스로 아카데미)	11:40~11:44 (4분)
		투표 결과발표	11:44~11:50(6분)
11:50~12:00	마무리	대표 인사	~11:55 (5분)
		마무리, 사진찍기	~12:00 (5분)

<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>

* 자원활동가관련

내적동기: 인정, 열정, 의미
 자원활동가의 결속력, 친목- 업무분담
 자원활동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

* 주민참여관련- 재능기부, 동아리 활동,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

* 도서관- 주민들의 독서성향 파악해서 새 책 구비, 북큐레이션, 책읽어주기
 독서문화 체험: 독서문화프로그램에는 주민들이 많이 모이지 않고 체험프로그램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- 어떻게 하면 독서문화프로그램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?

* 운영비 마련

* 네트워크 구축- 정보 공유

<협회의 방향모색> - 협회야 이것 좀 같이 해줄래?

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즉석에서 투표, 한글오피스를 이용해서 한 사람이 두 개 항목에 체크하는 방식

<나온 이야기의 결과>

- 정기적인 작은도서관 실태조사, 구군별 관공서에 도서관과 마련 촉구, 협회임원 및 구군 담당자 역할 강화 분담 0%,
- 우리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평화시위, 울산작은도서관 소식지 (홍보) 1%
- 신규도서관 지원과 관심 2%
- 운영자, 활동 맞춤 교육지원 13.6%
- 구군별 커뮤니티 네트워크, 협의회 구축, 독서 문화 프로그램 지원 18.2%
- 상호대차서비스 요구 (K-RAS) 구축 31.8%
- 도서관 재원 (운영비, 활동비, 시설비 등) 지원 45.5%
- 작은도서관 지원센터 설립 촉구 54.5%

⑤ 스스로 아카데미 평가 설문조사

■ 만족도 조사 소속 구군 분포:

북구 31%, 동구26%, 울주군17%, 남구13%, 중구 13%

■ 스스로 아카데미가 도움이 되었는지?

도움이 된다: 96%,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4%

■ 스스로 아카데미 만족도 체크

3회 프로그램 횟수 만족도 : 매우 만족 12명, 만족11명

■ 교육시간 (1회 120분) 만족도: 매우 만족 12명, 만족 10명, 보통 1명

■ 교육시간 (10~12시) 만족도 : 매우만족 12명, 만족 9명, 보통2명

■ 본인에게 도움이 는지? 매우 만족 12명, 만족8명, 보통3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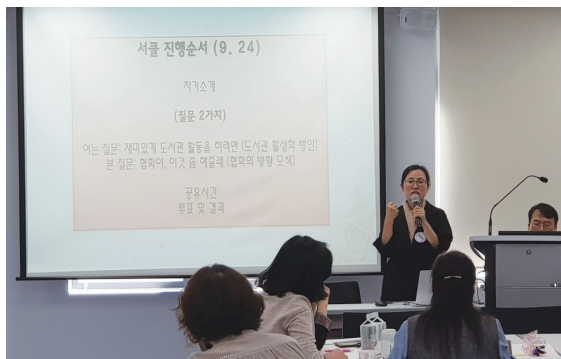
■ 아카데미 전반적 만족도: 매우 만족 12명, 만족 9명, 보통 2명

■ 기타의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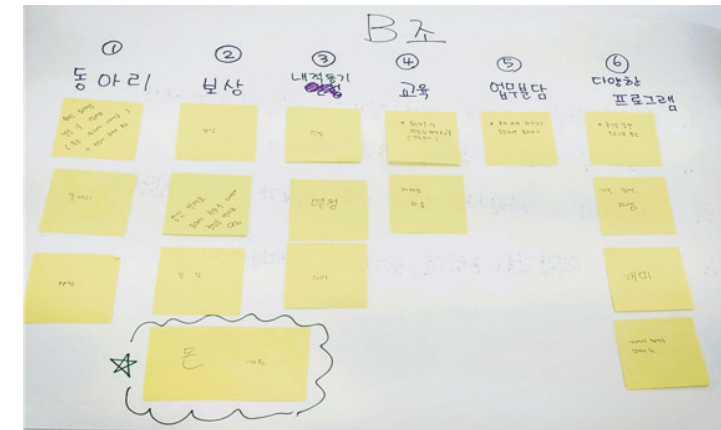
- 각 도서관만 가지고 있는 팩트를 보여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
- 전반적으로 서로간의 이야기를 많이 나눌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
- 작은도서관 커뮤니티가 활성화 되면 좋겠습니다.
-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웃음치료등 재미난 활동
- 우수 도서관 탐방(각도서관 게시판,소식지 활용 공유)
- 토론시간이 짧아 좀더 길게 공유
- 강의교육
- 작은도서관 간의 네트워크 형성필요
- 구군별 협의회 구축

■ 앞으로 다루고 싶은 주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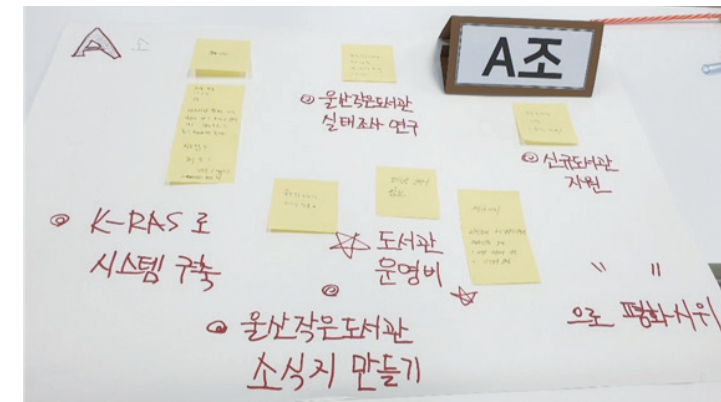
- 도서관 관리자 사례발표 기회
- 잘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사례발표
- 독서지도에 관한 프로그램
- 작은도서관 탐방
- 그림책읽기 강의
- 작은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
- 라벨링, 청구기호 통일
-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 고취 프로그램
- 책보수 및 복규레이션



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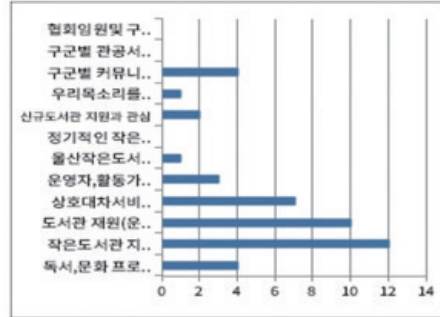
협회에 바라는 것



조별 키워드 투표결과

1. 작은도서관지원센터 설립
2. 도서관 자원(운영비, 활동비, 시설비)지원
3. 상호대차서비스

협회가 이것 같이 해볼래?



독서,문화 프로그램 지원	4	18.2%
작은도서관 지원센터 설립촉구	12	54.5%
도서관 자원(운영비,활동비,시설비 등) 지원	10	45.5%
상호대차서비스 요구(K-RAS구축)	7	31.8%
운영자,활동가 맞춤 교육지원	3	13.6%
출산작은도서관 소식지(홍보)	1	4.5%
정기적인 작은도서관 실태조사	0	0%
신규도서관 지원과 관심	2	9.1%
우리목소리를 높이기위한 평화시위	1	4.5%
구군별 커뮤니티 네트워크, 협의회 구축	4	18.2%
구군별 관공서에 도서관과 마련 촉구	0	0%
협회원및 구군 담당자 역할강화,분담	0	0%

2019 스스로 아카데미 참가도서관

[울주군]

교동리슈빌작은도서관
강변월드메르디앙작은도서관
문수산 동원작은도서관
문수산 더샵작은도서관
아너스빌작은도서관
지혜샘터작은도서관
해브리작은도서관
호반숲속작은도서관
황금동도서관

양정작은도서관
에플1차작은도서관
엠코 가온누리
작은도서관
책가방작은도서관
책놀이터작은도서관
책누리작은도서관
책마루작은도서관
책사랑작은도서관

[남구]

대명루첸작은도서관
마이코즈문고
울림북카페
책마루도서관

[중구]

꿈틀꿈틀작은도서관
세린작은도서관
에플3차아름작은도서관
작은도서관 책마을

[동구]

책방의하루
더불어숲 작은도서관
명덕이음작은도서관
전하작은도서관

[북구]

극동푸른작은도서관
꿈꾸는작은도서관
다울림작은도서관

달천아이파크1차작은도서관
수자인작은도서관
아름드리작은도서관

스스로 아카데미 TFT: 하현숙 손명옥 김숙진 노미정 김양숙 김보영 김정숙



“작은도서관들의 유쾌한 작당”과 함께한 소감

[2019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평가회의]

*날짜 : 9월24일 (화) 12시 30분~ 1시

*장소 : 울산도서관문화교실 1

*참석 : 9명

*내용 : 아동학대방지교육은 전체적 만족도가 높았다.- 남구는 아카데미 교육의 참석도가 낮은 것 같아, 협회회원가입을 늘리도록 해야겠다.- 전체차시 프로그램이 알차고 좋았다. (도서관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많았다. 각 구별 지원부분이 다르다는 것과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정보공유가 가능했다)- 도서관을 하게 된 계기, 참여한 분들이 자신의 경험과 얘기를 다양하게 할 수 있었다.- 결과적으로도 만족했지만 과정이 좋았다. 가능성을 봤다. 이런 활동들이 쌓여서 뭔가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을 것 같다.- 공모사업 잘하시는 분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. 초청강사로 섭외하면 좋겠다.- 퍼실리테이션 프로그램 진행이 신선했다.

